



# ‘땡큐! 버넵키’... 코스피 64.04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 美 금리 파격 인하 호재 힘입어 1,900선 회복 韓銀도 한·미 금리격차 줄일듯... 상승장 추세

◇코스피지수, 1,900선 회복=1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64.04포인트(3.48%) 급등한 1,902.65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9.22포인트(1.19%) 오른 784.67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인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전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다. 이날 54.17포인트(2.95%) 오른 1,892.78로 출발한 지수는 결국 1,900선을 뛰어 넘으며 8월9일 1,908.68 이후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개인은 6천93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주력했다. 외국인인 장초반 매수 우위였지만, 3천337억원의 매도우위로 돌아선 반면 기관은 9천39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FRB가 금리인하와 함께 제한인들도 동시에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둔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미국의 금융정책 당국이 경기

둔화에 대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다. 고우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FOMC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연준의 정책적 스탠스가 경기 쪽으로 옮겨졌다는 점에 있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추후 금리인하에 대한 여지를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상승 추세 복귀” VS “美 경기침체 우려 감인해야” 팽팽=버넵키 FRB 의장이 시장 친화적인 성격한 금리인하를 결정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를 기대해 커졌다. 심재업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FRB가 간접금리와 간접금리를 동시에

인하함에 따라 예상보다 금리인하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로 글로벌 증시와 부동산, 외환, 원자재 시장의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도 한미 금리격차 축소로 계기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미국경제의 둔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길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 김세중 신용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성장 후퇴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수단”이라면서 “성장 후퇴를 감안한 금리인하에 주식시장이 무턱대고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3.3%로 인하

영세점은 2%대... 유통·사치업종 제외

11월부터 중소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5~3.3%로 인하여 147만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2% 초반으로 낮아지지만 유통·사치업종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반영해 이 같은 인하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에 적용해 총 수수료 인하 여력을 도출한 뒤 해당 카드사의 순이익 등 경영 현황을 반영해 이번 인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영세가맹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수수료는 2.0~2.2% 수준으로 인한다. 또 현재 1.5~4.5%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1.5~3.3%, 2.5~4.25%인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2.5~3.3%로 변경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이원화돼 1.5~2.3%로 조정된다.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원가산정표준안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 가맹점별 수수료율 인하 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수료가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부동산중개·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경우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가 2.7% 선인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큰 변화가 없고 2% 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4.0~4.5%로 가장 높은 유통·사치업종도 인하 대상에서 배제됐다. 각 카드사들은 이번 결론에 따라 10월 한달간 가맹점과 맺은 계약을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11월부터 수수료를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美 금리 0.5%P 인하

### FRB, 4년만에 큰폭 내려 재할인율도 0.5%P 낮춰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4.75%로 0.50%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RB는 또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해주는 이자율인 재할인율도 0.50%

포인트 인하해 5.25%로 낮췄다. 이번 금리 및 재할인율 인하 결정은 지난 2003년 6월25일 1.25%에서 1.0%로 금리를 내린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에 대한 불신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지출에까지 영향을 줘 경제 전체의 침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또 FRB가 금융시장의 혼란스런 모습이 소비심리 등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및 가속화에 따른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고층서 수해복구 서비스 삼성전자 서비스팀이 19일 태풍 피해를 입은 고층서 서문 효교에서 하우젠 드럼세탁기로 빨래를 해주고,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비스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삼성광전자 제공>

## 국내 금융시장 어떤 영향 미치나 韓銀 콜금리 인상 기조 ‘제동’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가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9일(한국시간) 정책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는 곧 달러 약세를 부추겨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위험 재정거래(아비트리지) 유인이 확대돼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의 정책당국이 경기하강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이러한 거시경제의 흐름 변화가 시장을 두고 국내 금융시장이 미칠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7월과 8월 연속 콜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은 금리를 동결, 관망세를 유지했다. 9월의

콜금리가 동결된 배경 가운데는 미 FOMC의 금리 조정 여부를 지켜보자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단 한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금리의 본격적인 하강을 예고하는 것이다. 시장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의 대폭적인 정책금리 인하는 달러와 약세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업체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의 달러 선물환 매도를 부추기고 현물환율과의 격차를 벌려 스와프레이트를 뛰게 만들게 된다. 게다가 미국의 정책금리가 콜금리 운용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무위험 재정거래 유인이 커져 단기 외화차입이 더욱 급증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의 해외차입은 사실상 일시 중단 상태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될 경우에는 해외자금 조달 비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업체 “2~3만가구 사들여야 효과” 정부는 3~4조원 재원마련 고심

정부가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방안을 밝히면서 향후 주택 매입 규모나 대상 지역 등을 놓고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현재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최소 2~3만가구는 사들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정부의 자금조달 및 매입 방식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5만~6만가구 수준까지 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8만 3천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소 2~3만가구를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는

건설교통부는 현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규모가 2만~3만가구에 달할 말 현재 4조5천억원 가량의 여유자금 이 있다. 하지만 이 돈을 민간주택의 매입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야 하는 데다 매입임대자금 융자, 저소득층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한 여유자금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주택공사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분양주택의 매입 대상과 가격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미분양주택을 모두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만 사들일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매입가를 둘러싸고도 업체와 적잖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입 대상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고 매입가는 분양가보다 낮은 선에서 책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입대상 지역의 경우 임대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으로,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두바이유 배럴당 74.12달러... 사상 최고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사흘만에 반등하면서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8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74.12달러로 전날보다 1.13달러 올랐다. 지난 13일 기록한 최고치 73.79달러보다도 0.33달러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 역시 전날보다

각각 0.31달러, 1.31달러 높은 77.82달러, 81.93달러에 거래됐다.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WTI 10월 인도분 가격도 81.51달러로 0.94달러 상승했다. 지난 13일 사상최고치 80.09달러에 이른 뒤 14일 79.10달러로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이틀째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유류세 인하’ 변죽만 울렸다

### 휘발유·경유값 낮춘채 LPG·등유 특세세만 폐지

대통령민중선당이 내년부터 LPG 프로판가스와 등유에 매기는 특별소비세를 내리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휘발유·경유 세금 인하는 몸통은 놔둔채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프로판가스와 등유는 주로 서민층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세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으로 실제로 폐지·인하될 경우 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해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난방·취사용 연료에 대한 세금만 낮추면서 유류세 인하 여론의 물타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선당이 제시한 kg당 40원인 특세세를 폐지하는 특세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세세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없애지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격인 kg당 1천347원에서 44원이 줄어 1천303원으로

로 낮아진다. 가정에서 쓰는 취사용 LPG는 대개 한 통이 20kg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2만6천940원에서 880원이 내린다. 통상 취사용으로만 사용한다면 20kg 짜리 1통으로 1~2개월 정도는 쓰기 때문에 특세 폐지로 인해 가구당 연간 1만원 안팎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선당은 또 주로 농어촌 서민의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l 당 181원에서 60원으로 121원 낮추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등유의 특세세는 특세세법 시행령에는 l 당 181원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단례세율은 l 당 134원이기 때문에 60원이므로 현재 체감 효과는 l 당 74원 줄어드는 것이다. /연합뉴스

## “GMO 콩 식용유 가구당 22통 소비”

유전자변형(GMO) 콩으로 만든 식용유가 지난 6년 동안 가구당 132통이 사용됐으나 국내 제품에는 GMO 콩 사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627만l의 가공용 GMO 콩이 국내로 수입됐으며 당초 용도로 식용유로 전량 가공했을 경우 총 21억l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가구당 매년 1l 들어 식용유 기준으로 22통을 사용한 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내 4개 업체가 식용유 생산을 위해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총 344만여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CJ가 이 기간 동안 전체의 56.1%에 달하는 193만l을 수입했으며, 다음으로 ㈜신동방이 97만7천648l로 28.5%, 삼양유(2004~2006년)가 44만3천61로 12.9%, 그리고 삼양유지 식용유 사업을 인수한 사조오앤에프가 상반기 8만402l을 수입해 2.3%를 차지했다. 문 의원은 “유럽에서는 유전자변형 콩을 원료로 한 식용유에도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들은 유통중인 식용유가 유전자변형 콩을 원료로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4분기 기계·조선·전자업종 ‘맑음’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4·4분기에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업종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철강, 건설, 섬유 등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19일 내놓았다. 대한상의가 이날 발표한 ‘주요 업종의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기계업종은 올 상반기에 내수, 수출, 생산 등 전부분에서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4·4분기에도 내수 15.0%, 수출 18.8%, 생산 14.3%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업종은 고(高)선가 물량 출하 및 생산성 향상 가속화로 4·4분기에 생산 31.3%, 수출 6.5%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수출실적이 당초 계획인 27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자업종의 경우에는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부문에서의 부진 탈출로 4·4분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분양가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각종 부동산 규제는 건설업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규제 4·4분기 민간공사 수주가 34.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도 상반기 조기발주에 따른 물량부족 여파로 마이너스 하락세가 확대·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